

「方翰林傳」에 나타난 知己 관계 변모의 의미

김 하 라*

I. 서 론

內外分別의 이념에 의해 가내에 갇혔던 여성들의 사회적 활약을 핵심 화 소로 삼고 있는 여성영웅소설은 조선후기 여성들의 처지와 염원을 비교적 명료히 드러내는 작품군의 하나이다. 그 범위를 좁게 잡아 여성 주인공이 장군이 되어 출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홍계월전」·「이형경전」(이학사전)·「정수정전」·「옥주호연」·「방한림전」 등 다양하다. 이들 여성영웅소설은 여성 주인공이 男裝으로 出戰하여 자신의 영웅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을 서사의 중심 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그 여성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은 상대적으로 무력한 동료 남성과 대비되면서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또한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이후 여성 주인공의 성별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껏 여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던 동료 남성이 우월한 여성의 배우자로 결정되면서 생기는 분란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여성영웅소설의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서사의 중심 축이 된다.

그런데, 여성의 남장과 전쟁 참여·약혼자와의 갈등 및 그 해소를 서사의 중심 축으로 삼고 있는 여성영웅소설 작품군 속에서, 「방한림전」¹⁾은 특별한

* 박사 과정

1) 본고에서는 세 이본 「방한림전」(김동욱 소장본)·「낙성전」(정병욱 소장본)·「쌍완 기봉」(정신문화연구원 본) 가운데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할 때마다 다른 본을 언급할 것이다. 세 이본은 내용 전개상 큰 차이는 없으나 「쌍완기봉」에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여타 작품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남성과의 경쟁 모티프가 나타나 있지 않은 데다가 남장을 한 주인공 여성이 끝내 남성의 신분을 고수하며 여성의 삶에 대해 트인 인식을 가진 여성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남장 여성인 방관주를 자유주의적 여성해방론자로, 그 배우자인 영혜빙을 급진적 여성주의자로 그려내거나,²⁾ 방관주를 남성 콤플렉스의 소유자로, 영혜빙은 독신이라는 삶을 여성차별적 현실 속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있는 인물로 평가하는³⁾ 등 두 여주인공의 형상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들 연구에서는 각각의 인물이 갖는 개성을 밝혀내는 데 치중하여 두 인물간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략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이들의 관계는 서사의 중심 축으로서 뚜렷하고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어,⁴⁾ 이 작품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언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소설은 영웅소설의 자장 안에 존재하는 작품인바 그 특수성은 영웅 소설과의 관련 속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으나⁵⁾ 이 점에 대한 언급도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점에 착목하여, 두 주인공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사의 맥락을 따라갈 것이며, 그 관계의 변모 양상이 갖는 의미를 이 작품이 갖는 영웅소설로서의 특징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려 한다.

내면 묘사가 더 자세하게 된 부분이 많다.

2) 차옥덕, 『백 년 전의 경고-〈방한림전〉과 여성주의』(아세아문화사, 2000)

3) 장시팡,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국문학연구』 제6호, 2001) 26 4~271면.

4) 장시팡의 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두 사람의 이른바 동성결혼이 서로 다른 목적 하에서 행해진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어 서사의 전개에 따른 변화에 대해 더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5) 장시팡은 「방한림전」의 天定婚姻 화소가 동성결혼을 흥미소로 전락시킴으로써 이 작품을 대중소설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게끔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필자 역시 이 점에 동의하지만 작품의 구조와 관련한 더 자세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II. 방관주의 兩性的 형상

방관주는 建文朝의 爲君立節한 명사 方孝孺의 후손으로 명나라 正德 연간을 살았던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는 처음부터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재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는 주로 외모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태어날 때의 모습은 ‘해와 달의 정기를 품수받은 듯’ 뛰어났고, 자라면서는 흰 연꽃 같은 안색과 진주같은 눈빛에 가을 하늘 같은 기운이 서려 있어 중성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있다. 방관주에 대한 외모 묘사가 가장 두드러지는 국면이 바로 그가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를 하는 장면이다. 여기서는 일단 ‘티양이 부상(扶桑)의 도닷난 듯, 미목(眉目)이 강산의 영과 얼의였고, 그 윤덕호은 츄슈(秋水)의 부용(芙蓉)이요, 옥계(玉階)의 화왕(花王)이라’라고 하여 역시,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간하기 힘든 아름다움을 전면에 내세운 후, 왕이 賜酒하자 얼굴이 밟그레해진 모습을 玉盆蓮花로 묘사하여 여성적인 미도 강조하였다가 ‘풍치 헌출하고 범도 유여한 여’라는 표현으로 다시 남성성으로 귀결하게 하는 등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를 오가게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성격 묘사와도 연결되는데, ‘엄위강열(嚴威剛烈)한 애야 죠금도 여자의 연연조약한 턱도 읍서’ ‘묵묵단좌한 즉 동천한월(冬天寒月)니 벽천(碧天)의 걸여난 듯’하면서도 ‘담소를 일은즉 유한하고 유순한 미 삼동 눈이 녹난 듯’ 하여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방관주의 형상은 이상적인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 혼재된 중성성을 띠고 있다.

한편, 방관주가 성장기에 추구하는 주된 활동은 문장수업과 여행, 그리고 과거 응시이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행동 방식은 여성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활동을 구현하고 있어 주목할만하다. 일반화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러한 인물 형상은 바람직한 양성성을 구현하고자 한 20세기 초반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올란도』(Orlando)의 주인공이 남성으로 사는 200년간의 형상과 통하는 바가 있어 흥미롭다. 올란도는 남성일 때에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간하기 힘든 모습으로 그려지며, 작가는 올란도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해 상당히 애정어린 묘사를 함으로써 그를 단순한 남성의 성을 가진 존재에 그치게 하지 않는다. 또한, 올란도는 평생 글을 써 『떡갈나무』라는 책을 완성하고, 한편으로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대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이러한 문예 취향과 관직진출의 모습 역시 방관주의 형상과 통하는 점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성의 구현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방관주가 11세 때 부모의 3년상을 마치고 떠난 1년간의 여행은 작품이 향유되던 19세기 조선의 여성 현실과 관련하여 언급될 필요가 있다. 서사 전개상 꼭 필요한 사건이 아님에도 작가는 이 여행을, 아름다운 자연과 만나 글을 쓰고 슬픔을 잊는 행복한 시간으로 공들여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여행을 떠나야 하는가. 그것은, 부모의 허락 없이는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여성 현실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실제 19세기를 살았으며 14세에 부모를 줄라 남복을 하고 금강산 여행을 하였던 錦園이라는 여성의 형상은 방관주의 모습과 겹쳐지는 점이 있다. ‘거듭 부모님께 간청하고도 한참 후에 겨우 허락하시니, 이에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이 마치 매가 새장을 벗어난 것 같았다.⁶⁾라는 금원의 말에서 방관주와 같은 인물을 만들게 한 여성들의願望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방관주의 형상에는 당대 여성들의 이상이 투영되어 있으며, 깨인 의식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되는 영혜빙이 방관주에 대해 호감을 느끼게 된 것도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방한림전」에 나타난 ‘知己’의 문제

「방한림전」 전체를 통틀어 방관주와 영혜빙의 관계를 요약할 수 있는 말을 찾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知己’일 것이다. 두 사람은 혼인 이전에도 동반자의 조건으로 ‘지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6) “屢懇于親堂久而後，覩勉許之，於是胸次浩然，如鷺鳥出籠”(錦園, 「湖東西洛記」, 허미자 편, 『조선여류시문전집』3, 태학사, 1988)

혼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자신들에게는 물론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까지 ‘지기’로 인식된다.⁷⁾ 이 장에서는 두 사람의 지기 관계가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짚아가 보려 한다.

1. 관계의 시작: 同床異夢

한림학사 벼슬과 저택 및 전답을 사여받은 데다가 빼어난 용모까지 갖춘 열세 살 ‘소년 명사’ 방관주에게 혼담이 밀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여성의 몸을 가진 그에게 이 일은 우선 민망하고 우습게 여겨졌다. 그러나 그는 종신토록 남자로 처신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행보는 불확실하고 주저하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 이 야심에 따라 확고하게 진행된다.

명문가의 가장이자 조정의 고관인 영공의 적극적인 구혼에 방관주는 고민에 빠져든다. 그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처자를 들 필요, 상대 여인을 속이고 인륜을 회지음⁸⁾에 대한 가책, 자신을 이해하고 신분을 감춰 줄만한 인품을 갖춘 이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등 크게 자신과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고민을 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역시 스스로의 이기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규슈(閨秀) 선악(善惡)이 엊더흐온지 모르오니 감(敢)이 허치 못흐리로소이다”라고 하여 사양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결국은 혼사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게 된다. 이 말에 영공이 방관주를 집으로 불러 막내딸 영혜빙과 대면하게 하는데, 이 때 방관주는 영혜빙의 총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탄복하여 그를 얻고 싶어하면서도 자신이 남성이 아님을 애석해한다. 그리고 영혜빙이 자신의 아내가 될 경우 겪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고려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다. 그리하여 집에 돌아온 즉시 혼례를 추진해 나간다.

방관주는 자신을 위해 혼인을 해야 할지, 영혜빙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

7) 아들 낙성은 죽음을 앞둔 방관주를 위로할 때 “밧그로 상강의 일흘니 잊고 안으로 관포의 자음니 계신니”라며 방관주-영혜빙 부부의 관계를 규정한다.

8) 회지음: 회통함. 남의 일에 방해가 되게 함.

해 혼인을 하지 말아야 할 지의 딜레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일을 처리해 나간다. 그가 비록 “자개(自家) 남질(男子) 진대 저갓튼 숙녀를 절노 더브려 지괴(知己) 되민 무어시 부족호여 상호미 이시리요?”라고 하여 知己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은 기실 이성애 체계 내의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관계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이는 영혜빙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은 영혜빙과의 관계가 진전되면서부터이다.

영혜빙은 평소에 “녀조(女子)난 죄인⁹⁾(罪人)이라. 빅스(百事)의 임의 님의 (任意)치 못한 악(惡) 그 사람의 결제(節制)을 밧나이 남아(男兒) 못될지더 인윤(人倫)을 긁치미 올흐이이라”라는 생각을 하며 혼인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방관주를 본 후 생각이 바뀌게 된다. 그는 방관주가 여성임을 한 눈에 알아보고 “이런 영웅(英雄)의 여조(女子)을 만나 일성(一生) 지괴(知己) 되어 부부(夫婦)의 의(義)와 형제(兄弟)의 정(情)을 미즈 일성을 맛치미 너의 원(願) 니라.”라고 말하며 남편을 위해 용모를 단장하고 수건과 빗을 챙겨주는 구차함이 없는 대안적인 관계를 전망한다. 영혜빙이 말한 바 지기는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좀더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관계는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여성인 점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첫만남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知己를 원하는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는 동상이몽에 가깝다.

혼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방관주와 영혜빙은 첫날밤에 마주앉게 된다. 방관주는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태도 이면에 본색이 노출될까 하는 불안함을 억누르고 있고, 영혜빙으로서는 원하는 혼인을 하게 되었기에 마음 속에 기쁨과 기대를 감추고 있다.¹⁰⁾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방관주는 마음을 열지

9) 죄인: 「방한립전」에는 ‘죄인’으로 되어 있으나 「낙성전」 및 「쌍완기봉」을 참조하여 수정함.

10) “할님(翰林)은 슈려(秀麗) 흔 미우(眉宇)회 묵묵(默默) 흔 근심이 좀겼고, 영소저난 그 녀조(女子)를 암희(暗喜) 흔 야 하더라”

못하고 “학성(學生)니 정박(輕薄)한 필부(匹夫)여날 악당(岳丈)의 지우(知遇) 한 시물 넙스와 소제(小姐)가 모첨(冒添)하니 그혹히 다행(多幸)한은 서로 지기(知己)될가 바라나이다”라고 하여 자신의 본색을 감추고 헛되이 지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영혜빙은 “외람(猥濫)니 부부(夫婦)의 도를 일워시나 웃지 지기(知己)을 감당한 뒷고만은 스스로 도라보스 여조(女子)의 식견(識見)을 어둡게 말으소서. 혁(妾)니 군조(君子)의 심심(心事)을 누설(漏泄)치 안니리니 너무 속내지 말으소서”라고 하여 자신이 상대방의 본색을 알고 있음을 은근히 비치면서 서로 속이면서 지기가 될 수 없음을 꼬집는다. 방관주는 의아하고 또 自愧하여 불편하게 웃으면서 모르는 척 하고, 이에 실망한 영혜빙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채 초야를 보내게 된다. 결국, 동상이몽에다 자기중심적인 첫 만남에 이어 두 번째 만남 역시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방관주의 지기와 영혜빙의 지기는 그 의미가 다르다. 방관주가 자신의 성취를 중시하는 업적지향적 태도에서 영혜빙을 일종의 수단으로 여기며 이성애 체계 내의 부부관계를 피상적으로 지기라 표현하고 있는 반면, 영혜빙은 방관주의 본질을 깨뚫어본 후 그가 자신과 어울릴 것이라 여기며 관계지향적 태도에서 동성간의 마음을 터놓는 우정을 지기라 여긴 것이다.

2. 영혜빙의 관계지향성과 지기 관계의 성립

관계의 진전은, 방관주가 스스로의 내면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아무 말 없는 불편한 상태에서 보낸 첫날밤이 방관주에게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는 짐작이 가능한데, 어쨌든 다음 날 아침, 이 기이한 부부는 함께 사당에 현알을 하게 된다. 이 때 헌작을 하던 방관주는 “석스(昔事)을 성각하고 슬푸미 교집(交集)하야” 눈물을 줄줄 흘린다. 여기서 이 눈물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관주는 일찍 부모를 잃고 부득이하여 남장을 한 채 외롭고도 불안한 삶을 살아왔으며 간밤에는 자신의 본색을 또 한 사람이 알아챘으나 그를 믿어도 될지 알 수 없어 더욱 큰

불안감을 느낀 바 있다. 그가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삶에 대한 자기 연민의 표현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영혜빙 앞에서 자신의 속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성상 억지스럽긴 하지만 방관주의 남장을 보자마자 그의 인생을 정확히 분석했던¹¹⁾ 영혜빙이 이 말없는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리는 만무하다. 영혜빙은 방관주의 처지에 대해 공감과 연민을 느껴 함께 눈물을 머금게 되고, 이에 둘의 관계는 진전되기 시작한다.

앞서 영혜빙이 관계지향적 태도를 보이고 방관주가 업적지향적 태도를 보인다 하였거니와, 지기라는 관계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역시 영혜빙이다. 그는 방관주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데 힘입어 다시 말을 꺼낸다.

“할임(翰林)니 일월(日月)을 속이며 세상(世上)을 거망(欺罔)한 악(惡) 음양(陰陽)을
변착(變着)한 시물 아닌 한 번 헤석(解釋)한 신 즉 척(妾)이 종신(終身)도록 저버리지
리지 아이리이다”

여기서 뚜렷이 밝혀지듯이 영혜빙이 종신토록 저버리지 않을 지기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마음을 터놓고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관주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여성-을 인정하기가 그만큼 힘듦을 의미하는데, 방관주는 한참동안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을 잊지 못하다가 다음과 같은 복잡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①상천(上天)의 지중(至重)한 죄벌(罪罰)을 으더 팔 세의 양친(兩親)을 쌍망(雙亡)하고 혈류(子子)한 본신(本身)니 벽향(僻鄉) 궁촌(窮村)의 일기(一家) 회소(稀少)한니 수고무탁(四顧無托)한지라 ②스스로 이런 거조을 너여 속절읍시 세월을
천연(遷延)한 악(惡) 임의 십 세 되미 어린 고운니 더욱 궂칠 쥐를 물나 이 지경의 일
으려던니 ③금일 주의 쾌히 알을 당한 악(惡) 감히 다시 속이지 못한니 나난 임의
길을 그릇 드렁고 곡경지심(曲徑之心)니 잊서 금실지나(琴瑟之樂)을 불관(不關)니
역이건이와 존공(尊公)의 껌박(逼迫)한심물 면(免)치 못한 악(惡) 소여의 인윤(人倫)을

11) “반다시 월여서(어려서) 부잘읍슨 남복(男服)을 한 악(惡) 부모(父母) 죠세(早歲)한
권(勤)한 악(惡) 여도(女道)을 가라치리 읍서 이에 그치 누리기 어려워 이에 이르려쓰
니 실로 가소연이야”(이 부분은 「방한립전」을 기본으로 하되 「낙성전」을 참조하
여 수정함)

작회(作戲) 흐온니 참괴(慙愧) 흐미 낫들 곳시 육스나 ④다만 너의 본격(本迹)을 누
설치 못하리니 증의 침묵 흥물 바라노라”

어쩔 수 없어 남자로 살아온 것¹²⁾(①②)에 대해 털어 놓고, 영혜빙의 인
륜을 회자은 것에 대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며(③), 자신을 위해
침묵해 줄 것을 간청(④)하는 방관주의 솔직함에 영혜빙은 비로소 기뻐하며
완전히 방관주의 처지를 중심에 두고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구체적
인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낸다. 영혜빙은 방관주의 부탁대로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걸으로 보기엔 완벽한 이성 부부처럼 보이게
하여 방관주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어, 방관주에게 수염이 없는
것을 걱정한다. 또한 호칭에 있어서도 방관주가 제시하는 것처럼 평등한 형
제의 예가 아닌 부부의 예를 따르기를 종용하는데, 이는 자신을 낫추려는
것이 아니라 역할극에 충실하자는 의도이다. 영혜빙의 배려에 감복한 방관
주는 자신의 팔에 있는 처녀의 표지(비상쥬표:臂上朱標)를 보여 줌으로써 완
전한 믿음을 표시한다. 이에 비로소 두 사람은 어긋남 없는 지기가 된 것
이다.

3. 방관주의 자의식과 영혜빙의 포용

방관주는 충성심 및 탁월한 업무처리능력으로 천자의 인정과 총애를 받
고, 승직을 거듭한다. 그처럼 가정 밖에서 인정을 받음에도, 가정 내부에서
그의 말에는 자신의 처지로 인한 콤플렉스가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다음은 천자가 방관주를 이루 사랑 겸 태학사로 승급시키고 영혜빙에게 鳳冠花
履 등 명부의 복색을 지급한 날 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이다.

시랑(侍郎)니 눈을 드러 쇼켜를 보고 낭소(冷笑)할 “부인니 학성 갓튼 가부(家
夫)를 만나실 시 십삼 경춘의 너의 원비(元妃)되어 봉관화리(鳳冠花履)로 도으니

12) 이는 여타의 여성영웅소설에서 나타나는 현달하려는 목적이나 가문계승의지에 선
행한다. 근본적 이유는 남성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문계승의지
와 연결되고, 또 자신의 처지와 연결되어 강화된 것일 뿐이다.

조달(早達) 허시물 허례(賀禮) 헌나이다.” 영소저 화관을 기우리고 단순호치(丹脣皓齒) 현출(現出) 헌야 월 “이 다 현후¹³⁾의 은덕이라. 승덕(崇德)이 산악(山岳)갓건이 와 여즈(女子) 가부의 은총 니부미 살이(事理)의 을흘지라. 웃지 도로혀 앗기시난 요?” 사랑니 더소하고 쪼꼬 남아 안니를 슬어 헌더라.

방관주의 말은 생색내기의 형식을 띤 농담으로서,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에 그친다’는 미안한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방관주가 스스로를 家夫라 하였을 때, 그는 자신이 정상적인(즉, 남성인) 가부가 아닌 것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편, 영혜빙은 생색내고 과장할 필요가 없다고 응수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관주로 인한 자신의 조달이 사리에 맞고 당연하다는 표현은 방관주의 농담을 받아치는 동시에, 자신들의 관계도 다른 부부들처럼 정상적인 것임을 확인시켜 방관주의 콤플렉스를 감싸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크게 웃고 또 男兒 아님을 슬퍼하는 방관주의 모습은 여전히 콤플렉스에 싸여 있는 그의 상황을 잘 드러내 준다.

한편, 방관주는 뜻하지 않게 외임에 나가¹⁴⁾ 잠시 영혜빙과 헤어지게 된다. 그는 며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이별을 앞둔 심회를 표현하는데, 그 태도에는 어딘가 과장된 구석이 있다. 그는 지기와 헤어지는 슬픔을 표현하는 한편으로 “원컨대 현후난 길이 보중헌야 제사(祭祀)를 정성으로 밧들을 바라노라”라고 하여 책무를 강조하는 말을 한다. 영혜빙은 여기에 대해 서운해 하며 “첩니 임이 그더 쳐즈 되야 제소을 당부헌시물 기다리지 악이 헌나이다”라고 응수하며 이별의 괴로움을 주로 토로한다. 그러나 방관주는 애써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며 계속하여 남성적 태도를 취한다.¹⁵⁾ 제사를 받들라는 당부에 잘 드러나 있듯 방관주의 남성적 태도는 가문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13) 현후: 이는 방관주와 영혜빙이 상대방을 지칭할 때 종종 사용하는 호칭인데, 문맥상 賢友로 짐작되나 확실하지는 않다.

14) “방시랑을 형주 안찰스를 허호신니 그훈이 일연니라. 사랑니 할일읍셔 발행할 시”

15) “사랑니 이러나며 연연의회헌야 이윽고 가연니 이러나며 웃고 가라더 장부 나라의 몸을 허호미 안여즈의 턱을 헌야 쳐즈로 이별을 익기리오. 길이 무양□라”

그런데, 유모와 이별하는 장면에서는 방관주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약함이 더 직접적으로 배어나온다. 유모가 지나치게 슬퍼하자 그는 “어미 웃지료 흐난요. 필경은 너 먼저 죽으린니 그 띠난 웃지 흐리요?”¹⁶⁾라고 하여 유모를 더욱 근심시킨다. 잠시 떠나는 일에서 죽음을 연상할 정도로 그는 떠나 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별 장면의 마지막에서 자꾸만 뒤돌아보는 양은 과장된 남성적 행동 속에 깃든, 애틋한 마음과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방관주가 자꾸 돌아보는 모습에 대해 ‘가인(家人)니 다만 익중흐야 그런가 흐더라’¹⁷⁾라는 언급을 붙여 집안 사람들은 방관주가 연연하는 것이 아내를 愛重히 여겨 그런 것이라 짐작하고 있으나 실상 다른 뜻도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방관주의 이러한 복합적인 심리상태가 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자신의 모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영혜빙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찾고 있는 듯 보이는데, 임지에서 잠시 노닐다 巖上에 쓴 다음의 시는 그것을 비교적 잘 드러내 준다.

가을 바람니 쇼실(蕭瑟) 흐미여 이 니의 마암과 갓도다
괴특이 다음(知音)이 이시미여 아름듭고 가히 어엿부도다
스스로 바날파 실을 더지미여 몸이 누라 님군의께 절흐도다
스라 잇스미 원(願)을 이르미여 죽은 후의 성명(姓名)이 머물이로다¹⁸⁾

1연은 방관주가 지닌 근원적인 고독의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早失父母한 채 살아오고, 또 어떤 性에도 속하기 힘들어 경계에 서 있는 인물로서의 그의 처지를 대입할 수 있다. 2연은 영혜빙과 같은 지기가 생긴 것에 대한 다행한 심정과 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3연은 여성으로

16) 이는 ‘내가 떠나는 데도 이렇게 슬퍼하는데, 내가 죽으면 그 때는 어찌하겠느냐?’ 하는 정도의 말이었겠지만, 결국 복선으로 작용해 방관주의 요절과 조응하는 구절이 된다.

17) 또한 두 사람의 이별에 목격자가 있었다는 이 언급은 방관주의 과장된 남성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18) 이 부분은 「낙성전」이 더 상세하여 그것을 참조함.

서의 임무를 버리고 남성의 삶을 산 자신의 인생을 언급한다. 그리고 4연은, 살아서 소원을 이루었고 죽은 후에도 이름이 남을 것이라 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만족감과 긍정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4. 방관주의 갑작스런 家父長化와 知己 관계의 변질

방관주는 임지에서 落星이라는 이름의 사내아기를 얻어 와 아들로 삼게 되는데, 이 이후 그가 보이는 모습은 예전과 좀 다른 바가 있다.

방관주의 생일 연회에서 낙성의 혼약이 이루어진 후 기뻐하는 방관주 내외에게, 유모는 여성은 남성의 아내로서 출산을 해야 마땅하고, 여성과 여성의 관계는 부부가 아니라 자매인 것이 온당함을 역설하며 이들이 음양이라는 규범적 성체계에서 벗어나 있음을 일깨우는 언사를 한다. 이에 영혜빙은 미간을 찌푸리고 방관주는 눈을 부릅뜨고 유모를 꾸짖는다.¹⁹⁾ 방관주의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영혜빙이 “문박²⁰⁾ 형은 웃지 우연한 일의 유모를 질 타호신난요. 유모 불과 위쥬충심(爲主忠心)이라 쏘흔 알음답지 안닌야?”라고 웃으며 말하는데도 방관주는 그를 熟視하며 “부인니 여도(女道)을 알 땠라 웃지 가장의 즙를 부르난요?”라며 가부장적인 언사로 대처한다.

그리고, 방관주의 이러한 변화 및 그에 따른 지기 관계의 변질은, 전쟁을 통해 방관주의 남성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가속화되는 듯 하다. 국가에 내우 외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방관주는 북방 오랑캐를 토벌하려 자원출정하는데, 이 때 그의 의기양양한 태도는 하릴없이 나서던 이전의 외직 부임과는 꼭 대조적이다.

상서(尚書) 육수(玉手)로 금인(金印)을 쓸너노코 홍금조복(紅錦朝服)을 부인²¹⁾으로 벗기며 완연(完然)소월(笑曰) “더장부 입신천호 혀야 요순갓튼 임군을 도으미 웃지 더장니 되지 못호리요. 석인 소진(蘇秦)니 빙호호민 아즈어미와 안희 뵈를

19) 「방한립전」에서는 ‘절연니 용셔치 안니리라’라 하고 있으며 「쌍완기봉」에서는 더 육 심하여 ‘그더 알팎서 즙결호여 염여를 굿게 혀리라’라며 극언하고 있다.

20) 문박: 방관주의 자.

21) 부인: 「방한립전」에는 ‘보인’이라 되어 있는바 「낙성전」을 참조하여 고침.

의 나려 요동치 안던니 후일의 육국(六國)의 장상(將相) 혼야난 아즈미와 안희 다부복 혼야난니 부인니 날노 혼야 문인(文人) 소임(所任)을 할지연정 빅민장률을 호령 혼야 더장지지 읍술가 역였다가 이에 장군을 보고 고히 역이시미 심호도다.” (...) “첩니 상공으로 결발 혼안지 칠연의 오날날 말이(萬里) 타국의 가시미 웃지 슬푸지 안이릿고, 아지못계라, 능히 용병지지 계신야?” (...) “그더 학성으로 극 혼 지괴로더 오히려 나를 모르난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방관주가 자신의 흥금조복을 부인으로 하여금 벗기게 하는 장면이다. 남자의 총실이 되어 절제를 받으며 눈썹을 그려 아당함을 괴로워하고, 남편을 위해 수건과 벗을 가음아는²²⁾ 일을 구구하게 여기던 영혜빙의 평소 신념을 떠올려 본다면 이는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방관주는 자신의 출정에 슬퍼하고 걱정하는 영혜빙을 자신의 진면목을 알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자신의 남성성을 한껏 과시한다. 그리하여, 영혜빙에게 자신의 웃시중을 들게 하거나 ‘지기라면서 나를 모르는구나’라며 영혜빙을 조롱하는 방관주의 모습은 어느 새 이 둘의 수평적인 지기 관계가 수직적인 이성 부부의 관계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된다. 물론 이 뒤에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는 장면이 첨가되기는 하지만,²³⁾ 이는 앞서 외임에 나갈 때의 이별 장면과 비교한다면 형식에 그친다는 혐의가 짙다.

승전하고 돌아와 지극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된 방관주는 더욱 더 가부장적인 인물로 바뀌게 된다. 황제의 부탁으로 병풍에 글을 써 주고 선물을 받아 온 방관주는 그 물품 중 서진과 책은 아들에게 주고 통천관은 자신이 갖는다. 이에 영혜빙은 낭랑히 웃으며 어째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는지 묻는다.²⁴⁾ 방관주가 남성적·가부장적으로 되어 갈수록 영혜빙은 가족 내부의 관계에서 소외되며, 하사품을 父子만이 나눠가지는 모습은 이러한 소외 양상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영혜빙의 물음은 자신의 소외 상태를 지적하고, 원래의 지기 관계가 변질된 것을 은근히 꼬집는 말이라 할 수 있다.

22) 가음아는: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23) “상서와 부인니 감상(感傷)함을 익이지 못하던니 일어구려 밤을 지나고”

24) “군즈 상금벗든 거슬 아즈와 그더난 가지되 첨의개난 빛치지 안니호니 엇지요?”

그러나 방관주는 영혜빙의 본의를 눈치채지 못하고 단순한 투정으로 받아들이며, 성역할을 구분하는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영혜빙의 질문을 무마하려 한다. 그리고 능력 있는 가부장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강조하여 영혜빙을 굴복시키려 한다.²⁵⁾

영혜빙은 이러한 방관주에 대해 속으로 웃으면서²⁶⁾ ‘내가 여자인 것처럼 당신도 여자임’을 깨우치는 말을 하며, 남자 행세가 지나침을 지적한다.²⁷⁾ 애초에 영혜빙은 자신들의 지기 관계를 위해 방관주의 남자 행세를 동조한 것이었지, 그가 완전히 남자가 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방관주는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을 宦者 즉, 거세된 남자에 빗대고, 여성성과는 거리를 둔다.²⁸⁾ ‘환자는’는 방관주의 일그러진 성 정체성이 도달한 지점을 표현하는 말이 되어 버린다. 결국 남자보다 뛰어난 여자였던 방관주는 스스로를 결핍된 남자로 위치짓게 되고, 방관주와 영혜빙의 이상적인 지기 관계는 형해만 남아 있을 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IV. 「방한림전』의 의의와 한계

1. 여성영웅소설의 향방에 대한 고민의 투영

여성영웅소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자들은, 이 유형의 소설에서 여성들이 이루어내는 사회적 성취에 큰 의의를 둔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전쟁영웅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듯

25) “이거슨 다 부인의게 당치 안이호 빠라. 가이 부인을 쥬지 안켠이와 시방 부인 몸 우회 가진 위의(威儀) 다 너께서 비로순 빠라, 흠톡호거날 투정호신니 욕심 니 지증호도다”

26) 속으로 웃으면서: 원문에는 ‘잠소(潛笑)’라 되어 있다. 앞서 질문을 던질 때는 낭랑히 웃었지만(朗笑) 방관주의 태도를 보고 마음의 거리를 느껴 남몰래 웃게 된 것이다. 이 대화가 끝날 무렵에도 영혜빙은 역시 아무 말 없이 ‘잠소’한다.

27) “너의 당치 안인 빠 그더개 흘노 당할 빠 잇스리요. 맛참너 쪘리 꽤한 채 호시 난요.”

28) “부인은 들먹이지 말나. 시인이 날로써 환즈라 할지언정 궁곡히 의심치 안타이다” (이 말에 영혜빙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潛笑한다)

하다. 여성영웅소설은, 여성들이 사회진출의 현실적인 형태를 상상하여 이루 어진 장르라 볼 수는 없다. 여성의 소설구매력의 중대나 의식의 성장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남성영웅소설이라는 先形態가 없었더라면 여성을 전쟁영웅으로 등장시킨 소설이 나올 수 있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여성영웅소설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였을 때 더욱 확실해 진다.

민찬에 따르자면,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은 「이대봉전」과 「홍계월전」 계열로 각각 나뉜다. 전자의 경우 여주인공은 가문의 물량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본색을 감추고 남성영웅이 되고 환로에 진출하여 생활하다가 미리 약속된 남주인공과 결합하며 스스로 여성의 신분으로 돌아간다. 반면, 후자인 「홍계월전」 유형은 구체적 현실 속에서 남녀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와 다르다. 남자에게 예속된 생활을 거부하는 여주인공의 의지가 첨파의 충돌이라는 매개항을 통해 전개되고 있으며, 남녀대립에서 시종일관 여성의 우위를 유지한다. 또한 여주인공은 스스로 혹은 성정에 의하여 남장을 함으로써 「이대봉전」 계열과 차이를 보인다.²⁹⁾

전자인 「이대봉전」 계열은 남성을 능가할 정도로 뛰어난 여성이 왜 그렇게 쉽게 여성의 신분으로 돌아가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데, 이는 이 계열이 여성영웅소설 장르의 초기적 형태임을 나타내는 징후이다. 즉, 여성영웅은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의 구조 속에 이리저리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홍계월전」의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 이 계열에 등장하는 여성영웅들은 비록 전자와 똑같은 구조 속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작가가 주인공의 여성성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서사에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표현 방식은 경쟁자인 여성을 제거한다든가(「홍계월전」과 「정수정전」에서 첨을 처단함) 남주인공과의 대립에서 현저한 우위를 확인하는 모습을 떠나는 점에서, 비록 대단한 흥미를 끌 수는 있었을지언정, 모든 여성의 공감을 사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29) 민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29 ~131면.

「방한림전」은 이러한 여성영웅소설의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여성 형상과 새로운 남녀관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앞서 지기 관계로 설명한 동성결혼이나, 그 관계 속에서 영혜빙이 보여준 一以貫之한 형상은 이런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방한림점」에서 방관주가 보여준 모습은 분명 문제적인 것이지만 이상적인 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방관주는 해답을 내려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방관주의 형상은 '정신은 남자인데 몸은 여자라면 그의 본질은 무엇으로 여겨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던져주며, 남성과 여성을 구별/차별하는 사회가 여성뿐만 아니라 성이 모호한 사람들에게도 억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영혜빙의 안정된 인품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은 「홍계월전」이 보여주지 못했던 이상적인 여성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처럼, 「방한림전」은 그 시도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는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성차별적인 의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는 그 점을 작가가 창작 과정에서 맞닥뜨린 작품 전개의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영웅소설 구조의 도입과 작품의 통속화

3장에서, 「방한림전」에 나타난 지기 관계를 서사 전개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3장의 (1)(2) (3)절에 이르기까지 진전을 보이던 관계가 (4)절에 이르러 갑자기 변질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갑작스런 관계의 단절 혹은 변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이야기 전개 안에서의 설명이 가능하다. 변화의 원인은 영혜빙이라 기보다는 방관주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애초에 양성성을 가지고 성의 경계에 서 있던 방관주가 시간이 흐르며 남자 역할을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고 후사까지 얻게 되자 완전히 자신감을 얻어 보통 남성과 다를 바 없는

가부장적 인물로 바뀐 결과 예전의 지기 관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보다는 소설 창작자가 맞닥뜨린 구성의 문제에 더 주목하려 한다. 필자가 보기에도 두 사람의 지기 관계가 변화를 보이는 시점은, 앞서 3장의 (3)절에서 방관주가 詩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고 긍정과 만족을 표현한 직후라 여겨진다. 여기에 이르러 두 사람의 지기 관계가 안정적으로 성립되자 작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우선 동성 부부의 後嗣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벽력 소리와 함께 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낙성이라는 사내아기를 발견하게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비현실적 요소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일관된 경향성으로서, 그것은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의존이라고 우선 일반화할 수 있다.

후사를 정하고, 남성적 영웅의 면모까지 소유하여 절정에 이른 방관주의 삶은 갑작스런 내리막길을 향하게 된다. 이 때 방관주의 죽음을 예고하며 소설을 결말로 이끄는 모티프는 도사의 예언과 선친의 현몽이다. 이들은 각각 방관주에게 죽음이 머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방관주는 자신의 운명을 저항없이 받아들인다. 한편, 방관주와 영혜빙의 죽음으로 서사가 일단 종결된 후에, 작가는 이들을 아들 낙성의 꿈 속에 등장시켜 자신들의 삶을 설명하게 만든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천상계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잠시 인간 세계의 불완전한 삶을 살았으며, 이제는 모든 불균형과 결핍이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이 소설의 결구는 지상에서의 삶이 이미 초월계에 의해 예정되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소설의 후반부에서는 낙성의 신이한 등장, 도사의 예언, 선친의 현몽, 방관주 부부의 사후 현몽 등 초월적 세계의 개입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서사 전개의 주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후반부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의 하나는 군담이라 할 수 있다. 방관주가 오랑캐를 진압하는 전투에 참여하는 이 삽화는 당연히 방관주의 영웅적 성향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지만 그가 여성임을 나타내는 표지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지만, 적장이 도슬로써 전중에 침투한 것을 점을

쳐 미리 알고 퇴치한다든가 하는 낯익은 모티프들이 점철된 가운데, 죽은 적장의 첨이 지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원출전한다는 이야기가 끼어들어 눈길을 끈다. 그럼에도, 방관주는 그 남편을 한 칼에 두동강 내었듯이 그 여인이 등장하자마자 활로 쏘아 죽이는 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다. 이처럼 지나치게 남성화된 여성이라든가, 잠깐 홍미를 끌었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도구적이고도 物化된 여성 형상은 이 국면이 작품의 전반부에서 강조되던 여성들끼리의 자매애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방관주와 영혜빙의 지기 관계가 변질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작품 후반부의 서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월계의 개입과 군담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은 영웅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징 안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작가의 구성 의도를 추론해 보자면, 작가는 두 사람의 지기 관계가 충족되자 작품 전개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였는데, 이 때 영웅소설의 구조를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방관주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남성 주인공을 등장시켜 이전의 지기 관계를 와해시키고 새로운 부부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여성영웅소설의 구조를 도입할 수도 있었으나³⁰⁾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방관주에게 남성영웅의 가치를 덧붙이려 하였다. 그럼으로써 방관주는 남성성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왜곡된 형상을 갖게 되고, 영혜빙은 작품 내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방관주와의 수평적인 지기관계에서도 소외 되기에 이른다. 이제껏 창의적인 상상을 통해 性的 경계에 선 인물의 형상과 그 인물이 대안적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양상을 현실 차원에서 진지하게 그려나가던 작가가, 나름대로 구사해 왔던 리얼리티를 놓치기 시작하고 통속적 모티프에 의존하게 된 결과이다.

30) 「傅張兩門錄」에서는 이러한 사건 전개를 보인다. 남장 주인공 장수정금은 어사 윤침의 딸과 위장결혼을 하여 형제지의를 맺지만 그 역시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여성임이 밝혀져 약혼자 부계와 혼례를 올린다. 이로써 장수정금의 남성으로서의 삶은 끝이 나며, 그는 여성의 유폐된 삶이라는 깊은 한을 간직한 채 길고 긴 한 평생을 살아간다.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고전문학연구』 19집, 2001)

V. 결 론

지금까지 주인공 방관주와 영혜빙의 관계의 추이를 따라 작품의 경개를 파악하였다. 「방한림전」은 남성의 자리에 대입된 여성영웅이 아무런 고민 없이 가부장적인 사회체계로 복귀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남성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과 파괴적 태도를 통해 드러내는 일반적인 여성 영웅 소설의 흐름에 대한 고민의 결과 창작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가부장제적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 지기관계를 모색하는 동성결혼, 그리고 진정한 여성성에 대한 탐구를 체현하고 있는 영혜빙이라는 인물이 「방한림전」의 그러한 의의를 잘 드러내 준다. 한편, 두 주인공 사이의 관계의 변질을 기점으로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의 간극을 발견하였으며, 그 간극을 영웅소설의 전형적 모티프인 이른바 초월계의 개입과 군담 등이 작용한 결과로 설명하였다.

맺는 말에 대신하여, 작가의 서술 태도와 관련한 문제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작품의 마지막에 이르러, 작가는 도사를 등장시켜 방관주의 일생을 평가하고, 또 방관주 자신으로 하여금 낙성의 꿈 속에 나타나 그러한 평가를 똑같이 반복하게 만듦으로써 스스로의 일생을 결론내리게 한다. 그 요지는 ①현생에서 음양을 바꾸어 임금과 四海를 속였으니 그 별로 요절하였고 ②전생에는 호색이 지나쳐 그 별로 현생에서는 琴瑟之樂을 그치게 하였으며 따라서 자녀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방관주와 같은 여성 영웅에 대해 작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하여 흥미롭다. 자신의 타고난 본성에 따라 남장을 하고 출장입상한 삶은 요절을 불러일으킬 죄가 되어버리고, 영혜빙 및 낙성과의 관계가 염연히 존재했음에도 그것은 금슬지락이 그치고 자녀가 없는 불운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작가는 이로써 자신이 애써 구축해 나갔던 방관주의 일생에서 의미를 덜어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방관주의 삶을 풍요로운 남성적 가치들로 치장하면서도 그 한 구석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불길함이 깃들게 하는 서술방식, 이는 소설 작

가의 양가적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해서도 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참고문헌

- 허미자 편, 『조선여류시문전집』3(태학사, 1988)
-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6)
- 장시광,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국문학연구』 제6호, 2001)
-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고전문학연구』19집, 2000)
- 차옥덕, 『백 년 전의 경고-〈방한림전〉과 여성주의』(아세아문화사, 2000)
- 버지니아 울프, 『올란도』(김유정 역, 혜원출판사, 1995)